

“팔만 살짝 내렸을 뿐인데”...무명의 서른, 경이적인 ERA 1.43

KIA 좌완 이준영, 59경기 1승1세이브13홀드 ‘우등성적’ 투구폼 수정으로 달라진 구위·제구력 마무리급 셋업맨

KIA 타이거즈 좌완 이준영(30)이 서른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준영은 지난 2일 삼성과의 광주경기에서 세 번째 투수로 등장해 아웃카운트 4개를 깔끔하게 잡고 홀드를 챙겼다. KIA 불펜의 기동, 바로 그 모습이었다. 좌타자를 저격하는 원포인트 릴리프가 주업무이지만 필요하면 1이닝 이상도 소화하면서 불펜을 이끌고 있다. 59경기에 출전해 1승1세이브13홀드, 평균 자책점 1.43의 우등성적을 내고 있다. 데뷔 이후 커리어하이 기록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실가동 5년째를 맞는 이준영은 한 번도 5점

대 미만의 평균 자책점(ERA)을 찍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경이적인 ERA 수치를 내고 있다. 리그에서 5번째로 많은 등판이다. 마무리급 셋업맨으로 우뚝 선 이유는 투구폼 수정으로 달라진 구위와 제구력이었다. 그리고 성적이 나오면서 자신감까지 더해지고 있다. 2일 경기를 마치고 만난 이준영은 “자신있게 공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좋은 결과도 나오고 있다. 제구가 좋아져 안맞고, 빗맞은 타구 많아서 자신있게 던졌다. 중간은 강하게 던져야 한다. 큰 거 맞으면 게임이 넘어간다. 자신있게 깊숙하게 던지는 생각만 한다”고 이

유를 설명했다. 특히 구위와 제구가 한층 좋아진 비결은 투구폼의 수정이었다. 서재응 코치의 원포인트 레슨이 적중했다. 이준영은 “폼 수정이 있었다. 큰 것은 아닌데 서재응 코치님이 ‘오른 팔 위치만 좀 낮추어 그대로 나가라’로 조언 하셨다. 던지기 직전의 오른 팔의 위치이다”라고 말했다. 이준영은 슬라이더는 궤적이 큰 것도 있고, 강하고 짧게 바닥에 떨어지기도 한다. 좌타자들 뿐만 아니라 우타자들에게 통하는 이유이다. “카운트 잡을 때는 강하게 던진다. 바닥에 강하게 던질 때는 130% 힘으로 던진다고 생각한다. 두 종류라고 하기는 그런데 손으로 완급조절을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준영은 “달라진 수치(성적)는 자주 안본다. 보면 욕심이 생길 것 같다. 그냥 하는대로만 하자고 생각한다. 불빛 것



수 줄이고 공격적으로 가지는 생각만 한다”면서 “전상현과 장현식이 오기전까지 지금처럼 똑같이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며 자신감도 내비쳤다.

‘괴물’ 김민재 벌써 시즌 2호골...소속팀 나폴리 선두 도약

라치오 원정서 전반 38분 코너킥 이은 헤더 동점골...나폴리 2-1 역전승



나폴리의 김민재가 4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열린 라치오와 2022-23 이탈리아 세리에A 5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반 38분 헤더 동점골을 넣은 뒤 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아직 손흥민(토트넘 핫스피)과 황희찬(울버햄튼 원더러스) 등이 시즌 마수같이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비수 김민재(나폴리)가 벌써 시즌 두 번째 골을 넣었다. 김민재의 동점골이 발판이 돼 소속팀 나폴리는 승리를 거두고 이탈리아 세리에A 선두로 도약했다. 나폴리는 4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열린 라치오와 2022-23 이탈리아 세리에A 5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반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38분 김민재의 헤더 동점골과 후반 16분 크바라치헬리아의 역전 결승골로 2-1로 이겼다. 개막 2연승 뒤 3, 4라운드를 모두 비겼던 나

폴리는 3경기만에 승리를 축하하며 3승 2무(승점 11)를 기록, 인터 밀란에 3-2로 이긴 AC 밀란에 골득실에서 3골 앞서 선두로 도약했다. 아직 5라운드를 치르지 않은 아탈란타와 AS 로마(3승 1무, 승점 10)에 다시 선두를 내줄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나폴리는 주중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주말 리그 일정에서 승리를 거둬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반면 라치오는 2승 2무 끝에 1패를 기록하며 승점 8에 머무르며 7위로 떨어졌다. 중하위권에 있는 피오렌티나와 레체와 3, 4라운드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한 나폴

리는 전반 4분만에 펠리페 안데르손의 오른쪽 크로스를 받은 마티아 차카니의 슈팅으로 선제 실점했다. 그러나 이후 나폴리는 오히려 파상공세를 이어가며 경기를 주도했다. 전반 중반 크바라치헬리아의 골대를 때리는 슈팅으로 아쉬운 장면이 지나갔지만 전반 38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민재의 머리가 빛났다. 피오르티 지엘린스키가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 크로스를 김민재가 뛰어 올라 헤더로 연결했다. 급하게 라치오 골키퍼 이반 프로베델이 건어냈지만 심판 손목에 채워져있는 골라인 판독 알람이 울리며 동점골로 인정됐다. 김민재의 동점골로 더욱 힘을 얻은 나폴리는 빅터 오시멘의 슈팅이 다시 한번 골대를 때리며 역전골 사냥에 실패했지만 한동안 득점을 올리지 못했던 크바라치헬리아의 대포알 슈팅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안드레프랭크 잠보 아귀사가 오른쪽 측면에서 내준 패스가 아크 정면에 있던 크바라치헬리아의 오른쪽발에 걸리며 라치오의 골망을 찢을 듯 흔들었다. 이후에도 주도권은 나폴리가 가져갔다. 볼점유율 61-39로 크게 앞선 나폴리는 슈팅 숫자에서도 19-8로 압도적으로 많았을 정도로 경기를 지배했다. 김민재가 버틴 중앙 수비 역시 라치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며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날 김민재는 후스코어닷컴에서 매긴 평점에서 7.6점을 받으며 8.0점의 크바라치헬리아에 이어 팀내 2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다시 한번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리그 원정경기에서 기본종계 승점 3을 따낸 나폴리는 오는 8일 나폴리에서 리버풀과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손흥민, 골 빼고 다 보여줘...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

토트넘, 풀럼에 2-1 승리...손흥민, 개막 6경기 연속 골 침묵했지만 활발한 공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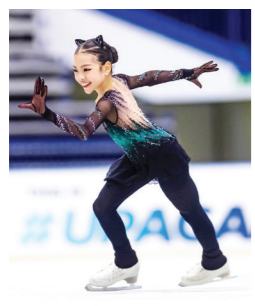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토트넘)이 개막 6경기째 마수같이 골을 신고하지 못했지만 제 경기력을 찾는 모습이다. 현지 언론은 손흥민의 2022-2023시즌 EPL 6라운드 풀럼전 활약에 대해 “골을 빼고 모든 것을 보여줬다”며 좋은 평가를 내렸다. 손흥민은 3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핫스피 스타디움에서 열린 풀럼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후반 39분까지 84분을 소화했다. 기다렸던 첫 골은 터지지 않았다. 사우샘프턴과 개막전에서 기록한 1도움 이후 공격포인트가 나오지 않고 있다. 토트넘은 호이비에르, 해리 케인의 골을 앞세워 2-1로 승리했다. 4승2무(승점 14)로 무패 행진을 이었다. 공격포인트는 없었지만 손흥민의 경기력은 좋았다. 특히 처음 선발로 나선 히사를리송, 케인과 원활한 호흡으로 공격을 이끌었다. 운이 따르지 않았다. 손흥민이 전반 10분 왼

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가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케인이 헤더를 시도해 골로 인정되지 못했다. 전반 33분에는 골대 분위기가 있었다. 케인의 정확한 침투 패스를 손흥민이 가슴으로 받던 후, 왼발슛으로 연결했지만 크로스바를 때렸다. 후반 36분에는 히사를리송과 멋진 장면을 연출했다. 왼쪽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히사를리송이 눈스톱 오른발슛으로 연결했지만 골포스트에 맞고 나왔다. 풋볼런던은 “조만 크로스도 골을 기록했지만 오프사이드로 취소됐고, 케인과 좋은 호흡을 통해 크로스바를 때렸다. 골은 없었지만 모든 것을 보여준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였다”며 높은 평점 8을 부여했다. 유럽축구통계전문 후스코어닷컴도 손흥민에게 팀 내에서 네 번째로 높은 평점 7.4를 부여하며 좋은 평가를 내렸다. 히사를리송이 8.6으로 가장 높았고, 케인이 7.9, 호이비에르가 7.6으로 뒤를 이었다.



프로축구 K리그2 광주FC 이근희 (사진 = 프로축구연맹 제공)

피겨 기대주 권민솔, ISU 주니어그랑프리 은메달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기대주 권민솔(목동중)이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2차대회에서 은메달을 땀다. 권민솔은 3일(한국시간)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7.72점, 예술점수(PCS) 58.92점으로 총점 126.64점을 받았다. 앞서 쇼트프로그램에서 62.73점을 받았던 권민솔은 최종 합계 189.37점으로 일본의 시마다 마오(212.65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로써 2009년생인 권민솔은 자신의 첫 국제무대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한국은 1차 대회에서 메달을 딴 남자 싱글 차영현(은메달), 여자 싱글 김유재(동메달), 아이스댄스 임해나-취안예(금메달)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입상에 성공했다.

“정말 빨리 적응했어”...김민재에 반한 나폴리 감독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나폴리의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국가대표 ‘괴물 수비수’ 김민재(26)의 빠른 적응에 미소를 지었다. 김민재는 4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올림피코 경기장에서 치러진 2022-2023시즌 세리에A 5라운드 라치오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2-1 승리를 도왔다. 김민재는 팀이 0-1로 끌려가던 전반 38분 피오르티 지엘린스키의 코너킥을 헤딩 골로 연결했다. 지난 2라운드 문자전에 이어 시즌 2호골이

다. 유럽에서 활동 중인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튼), 황의조(울림피아코스) 등 공격수들이 침묵 중인 가운데 수비수임에도 벌써 2골을 터트렸다. 스팔레티 감독도 김민재의 활약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경기 후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를 통해 “김민재는 나폴리의 까다로운 스타일에도 빠르게 적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민재가 입단식에서 동료들에게 ‘강남스타일’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재밌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첫 훈련을 마친 뒤에는 이탈리아어로 혼잣말하더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막 5경기 무패(3승2무·승점 11)를 달린 나폴리는 리그 선두로 올라섰다. 나폴리는 오는 8일 오전 4시 리버풀(잉글랜드)과 2022-202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치른다.

추가시간에 2골...K리그2 선두 광주, 2-1 역전드라마

프로축구 K리그2(2부) 선두 광주FC가 후반 추가시간에 2골을 몰아치며 첫 연패 위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광주는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김포FC와의 하나원큐 K리그2 2022 37라운드에서 0-1로 끌려가다 후반 추가시간 들어 내리 2골을 몰아치며 극적인 2-1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달 30일 부천FC에 일격을 당하며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멈췄던 광주는 첫 연패 위기에서 기적 같은 역전드라마를 썼다. 21승9무4패(승점 72)가 된 광주는 2위 FC안양(승점 59)과 승점 차를 13으로 크게 벌리며 K리그1(1부) 승격을 위한 순항을 이었다. 김포는 대어를 낚는 듯 했지만 경기 막판 고비를 넘지 못했다. 광주는 전반 23분 손석용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후, 동점골을 넣는데 애를 먹었다. 김포의

조직적인 수비에 번번이 기회를 놓쳤다. 패색이 짙은 후반 45분부터 드라마가 시작됐다. 후반 45분이 막 지나고, 연은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아론이 이오름의 크로스를 정확한 헤더로 연결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후반 추가시간 4분께 이근희가 박한빈의 크로스를 머리로 연결해 승부를 뒤집었다. 부천은 충남 아산의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아산과 경기에서 요르만, 조현택, 닐 손주니어의 릴레이골을 앞세워 3-0으로 승리했다. 특히 조현택은 1골 1도움으로 펄펄 날았다. 지난 라운드에서 선두 광주를 잠은 부천은 2연승을 달리며 3위로 올라섰다. 16승8무10패(승점 56)로 세 경기를 덜 치른 대전 하나시티즌(승점 53)을 4위로 밀어냈다. 2위 안양(승점 59)과 승점 차는 3으로 좁혔다.